

# 양림동 오웬기념각 상설공연 ‘어메이징 씨어터’

주빌리 앙상블 20일 ‘스텔라’ 첫 무대  
음악·연극·미술이 어우러진 음악극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공연



광주 양림동 오웬 기념각에서 상설공연을 진행하는 ‘주빌리 앙상블’

베끼던 대는 나무 바닥과 천정, 소박한 낡은 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소리...

조명과 음향 시설 등이 잘 갖춰진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옛 모습을 잃지 않은 100년된 공간에서 듣는 음악은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준다.

1914년 세워진 광주 양림동 오웬기념각(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예배 공간일 뿐 아니라 당시 음악회, 연극, 무용 공연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전당이기도 했다. 몇년 전부터 오웬기념각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올해는 남구관광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오웬기념각 상설공연-어메이징 씨어터(Amazing Theater)’가 매달 한 차례씩 관객들을 찾아온다. 작품을 제작한 ‘주빌리 앙상블’은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과 미술이 결합된 음악극 ‘스텔라’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오는 20일(오후 7시) 첫 무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공연된다.

‘스텔라’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동시대를 살았던 가수 윤심덕, 의사로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양림동 선교사 오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 연극, 미술로 풀어낸 작품이다.

주빌리 앙상블은 지난해에도 오웬기념각에서 공연을 개최, 인기를 모았다.

“오웬 기념각은 공간이 정사각형이고 울림도 좋아 언플러그드 음악이나 라이브 공연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건물이 오래돼 조명 등을 제대로 설치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매력적이죠.”

이번 작품의 대본을 직접 쓴 주빌리 앙상블 김용석 음악감독은 “오웬 기념각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작 오웬 선



오웬기념각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 다양한 음악과 함께 작품을 구성해 봤다”고 말했다.

작품은 동시대를 살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빈센트 역으로 연극 배우 정태석이 출연하며 윤심덕 역에 소프라노 박수연, 오웬 역에 테너 고규남, 대신저 역에 소프라노 노선진·김보경씨가 출연한다. 연출은 황민형씨가 맡았다.

서곡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앨범 삽입곡인 ‘스텔라’를 시작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울밑에선 봉숭아’, ‘농소화 사랑’, ‘사의 찬미’, ‘빈센트’, 타악 앙상블 곡 로사우로의 ‘마림바 협주곡 4악장’, ‘Aurora borealis 1악장’, ‘When you believe’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주빌리 앙상블은 지구촌 어려운 이웃의 인권과 난민 아동의 교육 회복을 돕기 위해 2015년 9월 창단한 전문연주단체로 성악앙상블 ‘솔라레’, 클래식 타악 앙상블 ‘메타’가 주요 연주를 담당하고 있다. 무료 공연.

문의 062-607-23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나가지, 조국의 아이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우리를 앞에/ 폭정의 피물은 깃발이 서 있다/ 들리는가, 저 흥포한 군사들의 사나운 소리가/ 그들은 우리의 품안에까지 쳐들어와/ 우리 아이들과 아내의 목을 베고/ 우리 발을 유린할 것이다/... ”(‘라 마르세예즈’ 중)

1792년 4월20일 오전, 프랑스는 혁명에 간섭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다. 닷새 후인 4월 25일 선전포고령을 지니고 파리를 떠난 전령이 스트라스부르 시에 도착했다. 라인강을 사이에 둔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군은 일촉즉발 상태였다.

지곡으로 묶였다. 제3공화국 시절인 1879년 햇볕을 다시 보게 된 라 마르세예즈는 현재까지 프랑스 국가(國歌)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라 마르세예즈’가 호전적인 가사에도 국가로 애창되는 이유는 역사성이다. 시민과 군인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다시 5·18 주간이다. 하지만 올해는 광주시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라고 지시해 올해 제37주기 5·18 기념식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목놓아 부를

## 아! 임을 위한 행진곡

그날 밤, 스트라스부르시장 프레데리크 디트리슈는 공병 대위 루제 드릴을 찾아와 다음날 아침 적진을 향해 떠날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진작할 군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대위는 밤을 새워가며 혁명가요를 만들었다. 바로 ‘라 마르세예즈’(마르세이유 군대의 노래).

이 노래가 ‘라 마르세예즈’로 불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인 7월2일이었다. 마르세이유를 출발한 500명의 지원병이 파리 교외에 다다르자 이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파리지역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때 시민들의 귀에 군인들이 부르는 힘찬 멜로디가 들렸고 이내 알 수 없는 벽찬 감정에 사로잡혔다. 구경 나온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라 마르세예즈’를 연호했다.

1795년 7월14일, 마침내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공화국의 국가로 선포됐다. 하지만 혁명과 공화국의 이념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나폴레옹 제정시대, 제3제정시대에는 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반대로 9년간 제창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공식 지정되고 박제된 예술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생활속 예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옛 그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오월의 난장’에서 3인조 밴드 ‘타카피’의 ‘임을 위한 행진곡’ 록버전 공연은 인상적이었다. 단조 선율의 비장미를 자아내는 행진곡도 좋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빠른 비트의 드럼사운드 역시 색다른 감동을 안겨 주었다. 콘서트에 참석한 20대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머지 않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레 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처럼 널리 애창될 날을 기대해본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제7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하루’ 부른 ‘파이커’팀

전국서 322곡... 10개 팀 본선

제7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에 창작곡 ‘하루’를 부른 ‘파이커’팀(사진)이 올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오월창작가요제 추진위원회와 (사)오월음악이 주관한 올해 오월창작가요제에는 전국에서 322곡이 접수돼 경쟁을 펼쳤다. 지난 14일 최종 10개 팀이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본선 경연에 참여했다.

파이커팀에게는 광주시장상과 트로피,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곡 ‘하루’는 매일 떠오르며 태양을 보며 하루라는 기회를 움켜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응원과 다짐이 담겨있다.

금상은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부패세력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담은 Band J-sy의 ‘그대로 멈춰라’, 은상은 세월호 참사를 바다가 삼킨 꽃으로 표현한 비버타운



의 ‘낙화(落花)’가 수상했다. 동상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라는 모리슨호텔의 ‘노동자의 노래’가 차지했다.

입상곡들은 실황 음반 발매 작업을 거쳐 온라인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한편, 가수 이안이 진행한 본선 무대에 가수 이한철, 제6회 대상 팀 ‘험블’, ‘평화의 나무 합창단’ 등이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서예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져 의미를 더했다. 문의 062-682-0518. /김용희기자 kimyh@

## 광산구 세계음식문화축제

21일 수완호수공원

제5회 광산구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4시 수완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아시아 각국 전통음식과 공연을 즐기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오감으로 교류하는 잔치로 태국식 돼지고기 꼬치 요리 ‘무사데’, 베트남식 크레페 ‘반 쉐오’, 케냐의 ‘비프스튜’ 등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8개 나라 16개 전통 요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또 세계전통의상, 전통민속놀이 체험,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증고물품을 사고파는 나눔장터도 열린다.

그밖에 문화 다양성 페스티벌 행사로 아프리카 전통음악 공연과 힙합 댄스, 필리핀 전통춤, 퓨전 국악(아이리얼), 퓨전 난타(얼쑤)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2-960-84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은암미술관, 19일 ‘이야기방 프로젝트’ 워크숍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문화콘텐츠 시민네트워크와 은암미술관이 19일 오후 2시 은암미술관에서 ‘이야기방 프로젝트’ 워크숍을 연다.

‘이야기방 프로젝트’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역사스토리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거점 이야기 동아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야기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과

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광주·전남 사회적협동조합인 아시아문화콘텐츠 시민네트워크는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참여형 시민문화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됐다. 아시아스토리텔링캠프 운영, 시민문화아카데미, 컬처웨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점과 함께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